

고졸 신인 포수 권혁경, 이의리와 '찰떡 배터리' 꿈꾼다



KIA 고졸 신인 포수 권혁경

7월 한승택·김민식 대신 덜컥 데뷔전...동기 이의리와 무실점 승리 합작
9월 두번째 콜업 받았지만 출전 불발...10월 17일 두산전서 데뷔 안타
"적극적인 타격으로 21일 한화전 복귀하는 이의리와 호흡 맞추고 싶다"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이름' 권혁경이 이의리와 '찰떡 배터리'를 꿈꾼다. 권혁경은 신인고졸을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에 데뷔한 고졸 신인이다. 2경기 출전 1안타에 그쳤지만 권혁경은 올 시즌 '뜨거운 이름'이 됐다. 7월 11일 KT와의 데뷔전부터 화제였다. 이날 포수 한승택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되면서 권혁경이 처음 1군에 콜업됐다. 그리고 김민식도 경기 시작을 앞두고 두산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KIA에 비상이 걸렸다. 2군 휴식일을 보내던 포수 이정훈이 급히 달려왔지만 몸을 풀 시간이 부족했고, 고졸 신인 포수가 선발로 덜컥 데뷔전을 치렀다. 권혁경은 동기 이의리와 호흡을 맞춰 2-0 무실점 승리를 합작했다. 화려한 데뷔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전반기가 1주일 일찍 막이 내리면서 권혁경의 전반기도 아쉬움으로 끝났다. 9월 14일 권혁경이 두 번째 1군 콜업을 받았다. 하지만 포수라는 포지션과 선발 라인업으로 끝까지 가는 윌리엄스 감독의 성향상 권혁경은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수비, 대타로도 나서지 못하면서 권혁경의 출전여부가 팬들의 관심이 됐다. 10월 17일 라인업에 드디어 권혁경의 이름이 올랐다.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에 8번 타자 겸 포수로 선발 출장한 권혁경은 첫 타석에서 좌투를 상대로 데뷔 안타를 만들었다. 9회까지 마스크를 쓴

권혁경은 3-3 무승부로 이 끝났다. 권혁경은 "시합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 입단하기 전부터 신인 때 무조건 첫 안타를 치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그 목표를 이뤄서 좋았다"며 "(최)원준이 형이 투수가 공이 빠르니까 투수랑 전에 타이밍 앞에 놓고 치라고 했다. 그럴 생각하면서 운 좋게 안타를 만들었다"고 웃었다. 포수로서의 모습도 나쁘지 않았다. 윌리엄스 감독도 "전체적으로 사인 내는 것도 괜찮았고 볼배합도 괜찮았다"고 좋은 평가를 했다. 권혁경은 "생각했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오래 경기를 안 해서 반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9이닝 3실점 하면서 지지 않았다. 이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데 그 부분만 빼고 나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또 "첫 경기보다는 마음이 편했다. 첫 경기 때도 애국가 듣기 전까지는 긴장했는데 그 뒤로는 괜찮았다"며 "어렸을 때는 긴장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긴장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번이라도 기회 출 때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긴장 별로 안 했다. 아직 수비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실수도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자고 생각했다"고 덧붙혔다. 경쟁한 선배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많은 공부했다. 권혁경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코치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잘 치는 선배들 보면서 '나도 저

렇게 해봐지'라는 생각했다"며 "10개 구단 포수하는 걸 다 봤다. 다들 수비력은 안정되어 있는데 타격이 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고 언급했다. 1달을 기다리면서 선배들의 응원도 많이 받았다. 권혁경은 "(전)상현이 형이 시합 못 나간다고 내려놓지 말고 운동할 때 집중해서 하라고 말해줬다. 시합 나간다고 하니가 좋아해 주고 (이)준영이 형과 응원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동기 이의리가 21일 한화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르게 되면서 권혁경도 힘이 난다. 목표도 생겼다. 권혁경은 "동기가 있다는 게 좋다. 의리가 무심하게 조금씩 챙겨준다. 둘 다 무덤덤한 성격이라서 잘 맞는다"며 "의리랑 같이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경기 하고 싶다"고 웃었다. 3주 연속 더블헤더 포함 7연전을 펼치게 될 윌리엄스 감독은 23일 NC와의 더블헤더에 권혁경의 기용을 예고한 상황 "그 전에 가능하면 1경기 더 기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고졸 루키 배터리'의 재결합이 기대되는 이유다. 권혁경은 다음 기회가 오면 더 공격적으로 후회 없이 하겠다는 각오다. 권혁경은 "타석에서 적극적으로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치겠다. 또 시즌 끝나기 전에 큰 것 하나 치고 싶다"며 "방망이는 자신 있었는데 확실히 1, 2군이 다르다. 행들이 스트라이크존 확실히 놓고 쳐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없다. 원준이 형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공부하고 있다"고 "한방" 욕심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서수연·김영전 등 도쿄 패럴림픽 스타들 총출동

전국 장애인체전 오늘 개막
광주·전남 선수단 선전 다짐

전국 장애인 체육인들의 대축제인 제41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20일부터 6일간 경북 구미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선수단은 탁구 등 총 22개 종목에 411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출전한다. 광주는 앞선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56개 등 역대 최다인 167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선수단에서는 축구 지적부 FC광주엔젤이 2연패 달성에 나서고, 광주장애인 육상의 '금빛 남매' 김하은·이승훈은 시각(스포츠등급: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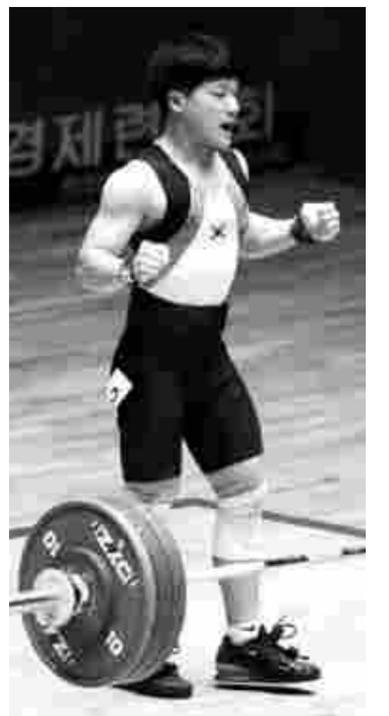
12) 100m·200m·400m 등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광주시장애인실업팀 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 탁구 남·여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리스트 김영건과 서수연 그리고 양구 김옥금, 사격 이지석은 패럴림픽의 아쉬움을 이번 체전에서는 반드시 금메달로 보답한다는 각오다. 광주선수단은 사전 경기로 열린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기본 좋은 출발을 알렸다. 전남선수단은 농구·요트·트라이애슬론 3종목을 제외한 25종목에 539명(선수 335, 임원·관계자 204명)의 선수단이 출전에 9만점 획득과 전년 대

회보다 두 단계 상승한 종합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체 종목인 여자배구 4연패, 뇌성축구 2연패 달성에 도전한다. 육상 필드 이미옥 3관왕, 역도 남자 -85kg 유병상, 여자 -67kg 김정화 2관왕 등 론볼, 탁구, 당구 등 개인종목에도 다수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선수단은 지난 9~16일 사전대회에서 카누 남자 S9프리트 200m KL1 김광현, 여자 200m KL2 손영숙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사격 여자 공기 소총 입사 R2 개인전 이윤리가 은메달을 따내며 순항하고 있다. 한편, 대회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등의 행사 없이 치러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흥 출신 신록 역도 한국신기록 '번쩍'

남자 61kg급 합계 294kg

한국 역도 경량급 유망주 신록(19·고양시청·사진)이 남자 61kg급 합계와 용상에서 한국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고흥 출신인 신록은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배 역도경기대회 남자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30kg, 용상 164kg, 합계 294kg을 들어 한국 기록을 작성했다. 국제역도연맹은 2018년 11월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를 만들었고, 세계 기준기록을 발표했다. 대한역도연맹도 한국기준기록표를 만들었고, 한국 남자 61kg급 합계 한국 기록을 294kg으로 정했다. 신록은 이날 인상에서 130kg을 들어 이 부문 한국 주니어 기록을 작성했다. 인상 3차 시기에서 133kg을 신청해 한국 기록(132kg)에 도전했지만, 바를 놓쳤다. 용상에서는 2차 시기에서 164kg에 성공해 자신이 지난해 9월 전국남녀역도선수권에서 작성한 163kg을 1kg 넘어선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인상과 용상 기록을 합산한 합계 294kg도 한국 기록으로 인정받았다. 신록은 합계 270kg(인상 115kg·용상 155kg)을 든 김선영(22·홍천군청)을 24kg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그는 고흥고 3학년 때 전국체전 역도 3관왕을 차지했고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61kg급 결선에서 인상 127kg, 용상 163kg, 합계 290kg을 들어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는 형인 신비(21)와 함께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에서는



당시 고1이던 신록과 고3이던 신비 형제가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록은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은메달 2개, 2017년 제46회 전국소년체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중학 무대를 주름잡으며 일찌감치 스타성을 보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올렉·고태원·김다솔 '베스트 11'

부산전 2-0 승리로 4강 확정

전남드래곤즈의 올렉(MF), 고태원(DF), 김다솔(GK)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2021 K리그2 34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둔 전남에서는 올렉, 고태원, 김다솔이 명단에 포함됐다. 전남은 앞선 경기에서 발로텔라와 이종호의 골을 앞세워 승점 52점을 획득, 5위 부산(승점 41)의 추격을 뿌리치고 4강을 확정했다. 특히 호수비 페레이드로 부산의 막판 공세를 막

고 무실점 승리를 완성한 김다솔은 지난 33라운드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의 골키퍼'로 선정됐다. 34라운드 MVP의 영예는 1골 1도움의 활약을 한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드필더 이현식에게 돌아갔다. 이현식은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29분 원기종의 동점골을 도운 뒤 후반 19분에는 역전골도 장식했다. 이현식의 활약을 앞세운 대전은 두 경기 연속 '4골' 잔치를 벌이며 4-3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렉 고태원 김다솔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돈, 베놈 2: 렛 데이 비카니지
- 2관 베놈 2: 렛 데이 비카니지 스페이스 독 3: 트로피컬 어드벤처
- 3관 베놈 2: 렛 데이 비카니지
- 4관 돈, 007 노 타임 투 다이
- 5관 돈
- 6관 돈, 보이스
- 9관 베놈 2: 렛 데이 비카니지
- 7관 씨네커틀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보이스 기적, 용과 주근깨 공주
- 8관 씨네커틀 007 노 타임 투 다이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신개월의 미래, 실·인연의 시작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 10. 27. (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 (토) ~ 11. 06. (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